

광주시·전남도, 희생자 연락처 찾아 부고 전한다

장례 지원 나섰지만 연락처 담긴 휴대전화 없어 부고 알리지 못해 과기부 협력 백업방안 협의...시, 누리집·뉴스통신사 통해 안내도

제주항공 참사 닷새째를 맞아 희생자들의 장례절차가 이어지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공무원들이 장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희생자들의 지인 연락처 등이 담긴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거나 훼손이 심각한 사례도 있어 부고 등을 알리는 데 애를 먹고 있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지난 1일부터 희생자들의 장례식장 안치가 시작됨에 따라 장례식장으로 이동해 장례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희생자 지인들의 연락처 등이 담긴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찾지 못해 부고를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휴대전화 백업 등 방안을 협의 중이다.

현재 장례식장에 지원 나온 26명의 광주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은 희생자들의 동호회 정보 등까지 수조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돕고 있다.

이날 장례 지원을 나온 한 공무원은 “(고인이)

주말 오전마다 운동장에 모여 축구를 했다’는 유족의 이야기를 듣고 지자체에 등록된 동호회 목록을 확인해 동호회장에게 연락했다”고 밝혔다.

이 공무원은 “사고 초기라서 동호회장이 희생자의 사고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가족분께서 (연락처 확보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또 유가족이 요청하면 시청 누리집과 뉴스통신사 등을 통해 부고 안내를 돕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장례식장에서 유족과의 면담 등을 통해 “희생자 휴대전화 연락처 복구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 공무원들에게 부고 안내를 긴급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도 이 같은 사례를 전달하고, 휴대전화 백업 등을 긴급 건의했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유가족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례를 파악하고 47구를 대상으로 가사와 식사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2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 합동조사단원들이 기체 내부등을 수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동포사회 “희생되신 분들 명복 빌며 유가족에 깊은 위로”

재외동포청·국내외 동포단체

에도 성명에 분향소도 설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재외동포청과 국내외 동포단체들이 위로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조화를 보내는 등 애도 불결에 동참하고 있다.

2일 동포사회 등에 따르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정책 전담 기관인 재외동포청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공식 홈페이지 팝업창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등으로 위로를 전했다.

재외동포청은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정부는 모든 지원을 총동원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중앙재난대책회의에서 4일 자정까지 7일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발표 한 바 있다.

각국 500여개의 한인회와 10개 대륙 한인회 총연합회를 대표하는 세계한인회총연합회(세한총연)는 애도문을 내고 “진심 어린 위로와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우리가 모두 함께해 마음의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필요한 조치들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한총연 산하 단체들도 잇달아 목소리를 냈다.

27만 미주동포를 대표하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아시아 22개국 75만 동포를 대변하는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깊은 애도의 마음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는 사고 발생 장소인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조화를 전달했다.

또 성명을 통해 “정부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안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며 “사태 수습과 유가족께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유포)도 성명에서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진심 어린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투명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 한인회는 북가주(북부 캘리포니아) 한인 단체 및 주샌프란시스코 한국 총영사관 측과 함께 2~4일(현지시간) 한인 회관에 희생자 분향소를 마련한다. /연합뉴스

전남도, 희생자·도민 심리 상담 마음투자 지원

전남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24시간 핫라인 심리상담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심리적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 가족, 사고 수습 관계자, 도민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을 통해 트라우마 증상을 완화하고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재난의 경험은 스트레스 증상, 우울증,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같은 심리적 반응을 보일 수 있어 적절한 개입이 없으면 개인 삶의 질 저하 뿐 아니라 생산성 저하, 의료비용 증가, 사회적 기능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들어 피해자 가족과 사고 수습 관계자들의 경우 무안공항과 숙소로 사용되는 목포대 기숙사를 중심으로 심리 회복 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해 지속적인 상담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남도민 등 불특정 다수에게는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무안종합스포츠파크, 도청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 전남 전 지역 보건소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상담도 가능하고 심리상담 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언제든지 1577-0199 전화로 가능하다.

모바일 플래이스터에서 ‘터치마인드’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하고 상담·치료기관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이 확인된 도민에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도록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바우처 8회분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제주항공, 이르면 다음주 국내선부터 운항 감축

제주항공은 이르면 다음 주 국내선부터 운항량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2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참사 브리핑에서 “국내선은 이르면 다음 주, 국제선은 이달 셋째 주부터 (운항 감축)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은 운항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운항량을 10~15%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송 본부장은 항공편 무더기 취소로 인한 유동성 위기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취소량이 과거보다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신규 예약이 그 규모가 줄어들긴 했어도 유입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작년 3분기 기준 제주항공의 선수금은 2600억 여원이다. 선수금은 기업에서 상품 등을 판매하기 전에 미리 받는 대금으로, 예매된 항공 티켓값이 여기에 해당한다.

송 본부장은 안전 투자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항공기 도입과 관련해서 이미 선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투자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여야, 여객기 참사 국회 특위 구성키로...진상규명·유족지원

여야는 2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과 유가족 지원, 추모 사업 등을 추진할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 수습이 일단락된 후 특위를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참사 대응을 위해 구성하기로 합의했던 ‘국회 대책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책위에서 지원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 차원에서 실질적인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또 다음 주 초까지 현장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 의원들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은 정쟁을 멈추고 사고 수습과 회복을 위해 여야가 하나 돼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이정희(870625-2XXXXXX)
- 최후주소: 목포시 원산중앙로 108, 202동 1003호(연산동, 주공2단지아파트)
- 피상속인 망 이정희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정법원 목포지원 2024노단401호로 신청하여 2024년 12월 2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1월 3일
- 상속인: 황수진(120101-6XXXXXX)
목포시 원산중앙로 108, 204동 504호 (연산동, 주공2단지아파트)
- 신고기간: 2025. 1. 3. ~ 2025. 3. 15.
- 채권신고처: 청구인 황수진의특별대리인이었던 최정삼 연락처(010-2717-0870)

상행안내

1월4일(토)

▲광주호산회 1월 4일(토)17시(87차)강원도 가리왕산 삼림, 생태 탐방 및 정선 아우라지 물레길 트레킹 04시 30분 중앙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4시 45분 전월동 육교 및 04시 50분 배운우체국 05시 롯데백화점 05시 15분 광주예술회관 후문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

光州日報

지역안내

• 동 경 206-1620 • 문 흥 209-1960 • 북광주 525-0761
• 신 안 222-8171 • 영 신 571-7888 • 오 치 266-7601
• 흥 흥 433-1503 • 우 신 433-1503

• 남 경 673-8836 • 동 명 222-4054 • 동 부 225-6001
• 흥 흥 222-9054 • 흥 흥 222-8171

• 남 부 673-8836 • 백 은 651-1833 • 흥 흥 673-8836
• 흥 흥 675-6605 • 진 흥 671-7276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흥 376-6511 • 흥 흥 803-0311
• 흥 흥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887 • 월 국 959-1020 • 흥 흥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